

# 朝鮮時代 敎訓書에 나타난 兒童 年齡 期待에 관한 研究

## Assessment of Child Development in Books for Domestic Life Education during the Chosŏn Dynasty Period

신 양 재\*  
Shin, Yang Jai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al beliefs about chil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Korean culture by analyzing and interpreting normative expectations of the age in disciplining children as presented in books for domestic life education of the Chosŏn Dynasty period.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the historical method. The literature used for analysis was the Naihun, Gyubeomseonyoung, Sasojol, Jongbo-Salimgyoungjai, and Hahagijna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discipline of children began from the age of three. The selection of the age of three wa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3-year-olds begin to have an understanding of events in their world. From 3 to 10, socialization of the Chosŏn Dynasty period gave prominence to social competency in interrelationships, especially honor of elders, modesty and sex role typing.

### I. 序 論

#### 1. 問題提起

아동연구에서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행동에 관한 연구는 오랜동안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어져 왔다. 특히 부모의 통제행동은 빈번하게 연구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사회화나 훈육방식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부모의 통제 행동이란 자녀의 행동과 내적 상태를 조절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자녀 행동을 형성하는 노력이나 방법을 말한다(Rollins & Thomas, 1987; Simon, Beaman, Conger & Chao 1993). 그런데 최근들어 부모행동에 관한 기존 연구경향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행동에 대하여 특정 유형이 고정화 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왔으나(Maccoby, 1984; Grusex & Goodnow, 1994),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자녀의 성별, 연령, 상황 등에 따라 부모의 훈육행동

---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이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Bacon & Ashmore, 1985; Dix & Grusec, 1985; Dix, Ruble, Grusec & Nixon, 1986).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한 代案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새로운 연구 조류의 한가지로는, 사회심리학의 歸因理論에 기초해서 아동훈육에 접근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거론할 수 있겠다(Dix et al, 1985; Dix et al, 1986; Gretarsson & Gelfand, 1988; Dix, Ruble & Zambarano, 1989).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훈육행동이 자녀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성을 나타내는 것은 자녀행동의 객관적 속성 차이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그 행동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解釋이나 主觀的 知覺에 의한 영향을 더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즉 훈육상황에서 부모의 반응은 자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의 부모 평가와 수행방법에 대한 부모의 개념화에 기초해서 자녀에게 조정된 결과로서(Dix et al, 1986; Holloway & Hess, 1985), 최근에 강조되는 자녀효과는(Bell, 1976; Belsky, 1984)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訓育理論일 수도 있다(Bacon & Ashmore, 1985; Dix et al, 1989)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와같은 근거들은 아동훈육상황에서 자녀행동에 대한 부모의 歸因過程에 관한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사회심리학에서의 歸因過程은 주변의 事象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사회추론과정을 일컫는데,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은 이 歸因過程에 의해서 매개된다(Fiske & Tayler, 1984)고 한다. 귀인 이론 중 Hider이론이나 Jones와 Davis의 對應推論理論에 근거해서 본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특정 훈육적 반응행동을 나타내기에 앞서서 자녀 행동의 의도성이나 책임성여부에 관한 歸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리는 자녀가 현재 가지고 있는 知識과 能力으로 그 행동 효과의 산출이 가능할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Dix et al, 1986; Dix et al, 1989).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귀인과정과는 달리, 歸因의 對象이 兒童이라는 점이 특별한 歸因脈絡을 이루게 된다는 점이다(Dix et al, 1985). 즉 귀인대상으로서의 아동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發達上의 制約은 부모의 추론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그 효과를 아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나이인가에 관한 판단에 의해서, 자녀에 대한 훈육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귀인과정은 兒童年齡에 관한 父母의 信念과 연관이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즉, 부모의 귀인에서 아동의 발달상의 제약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현재 자녀가 가진 사회적 지식과 능력에 대한 판단은 부모가 아동의 발달시기에 관하여 가진 知識이나 期待, 즉 信念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것이다(Dix et al, 1986). 그리고 Kelly의 귀인이론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一致性 歸因圖式을 부모판단에 적용하여 보면, 부모는 동일 연령의 일반아동에 대한 規範的 行動基準를 근거로 하여 자녀행동을 평가한다고 한다. 이것 역시 발달연령에 관한 信念이 자녀행동에 대한 부모의 歸因에 중심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Dix et al, 1985).

그런데 父母의 信念은 아동발달과 부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知識인데(Hoden & Edward, 1989), 부모의 이러한 신념은 아동이나 아동발달에 대한, 그 사회에서 전승된 文化的 知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文化構

成的 立場(cultural construction model)에 근거해 볼 때(Shweder, 1982; Goodnow, 1985, 1988; D'Alessio, 1990; Harkness, Super & Keefer, 1992), 아동발달에 대한 신념의 준거를 그 사회에서 전승되어 온 文化的 知識으로부터 출발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아동의 연령에 대한 부모의 信念에 대한 문화의 영향은 東西文化間 比較를 행한 몇몇 연구에서 보 증받을 수 있다. Hess 등의 연구(Goodnow, 1985)에 의하면 자녀 발달의 시기에 대한 인지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문화간 차이가 현저히 나타났다. 즉 일본 어머니는 미국 어머니에 비해서 울지 않는다는든가, 화를 조절하는 등의 정서적 행동, 어른에 대한 예절 및 순종에 대한 통제의 시기를 상대적으로 보다 이른 연령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어머니는 일본 어머니에 비해서 의심이 날 때는 물어 본다는든가 자기 견해나 느낌을 표현하는 등의 언어적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에 관한 시기를 상대적으로 보다 이른 연령으로 보고 있다. 또한 Ninio(1979)는 아동의 인지와 신체영역에서의 발달 시기와 특정 양육행동을 시작할 적절한 시기에 관한 부모의 인지를 비교 연구했는데, 그 결과 신체적 영역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인지 영역에서는 아시아 출신 어머니에 비해 서구 어머니들이 인지발달과 관련된 양육행동을 연령적으로 보다 이른 시기에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서구화된 지역일수록 유아의 인지발달이 더 어린 시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신념이 나타났다(Ninio, 1988). 이러한 결과들은 그 집단에서 가차롭게 여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어린 시기에 그것을 기대하고, 자녀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가급적 빠를수록 더 좋다는 신념이 그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Goodnow, 1985)을 말해주

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자녀훈육 상황에서 부모의 통제행동을 결정하는 데에는 아동의 연령에 대하여 부모가 갖고 있는 신념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이러한 부모의 신념은 문화적 맥락내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前 研究(愼良宰, 1994a; 1994b; 1994c)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文化라는 것은 歷史的 展開過程 안에서 維持·變形된다는 점에서 볼 때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한국 사회의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훈육행동에 보다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 교육 상황에서의 아동의 연령기대에 관한 한국 문화 내의 전승적 지식은 무엇인가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전통사회에서 가졌던 兒童 年齡에 관한 期待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論語, 禮記, 小學, 胎敎新記, 東醫寶鑑을 분석문헌으로 하여 朝鮮時代의 인간발달 단계를 고찰한 柳暉淑의 연구(1989) 뿐이어서, 이에 관한 좀더 폭넓은 文獻分析을 통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조선시대 문헌 중에, 기존 연구(孫直銖, 1981, 1993; 金玉姬, 1985; 禹英姬, 1989; 柳暉淑, 1989, 1991; 李貞德·宋洵, 1993)에서 아동교육이나 양육 측면에서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된 敎訓書들을 중심으로 하여 朝鮮時代의 兒童 年齡에 대한 期待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갖는다. 첫째, 子女訓育時 어떠한 兒童期 概念化에 기초하고 있는가? 둘째, 子女訓育時 兒童의 各 年齡別로 어떤 구체적인 行動들을 期待하고 있는가? 셋째, 子女訓育時 兒童의 性別에 따른 行動期待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는 현대 한국사

회 부모들이 갖는 歸因過程과 같은 社會認知 이해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2. 研究方法

전술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文獻研究를 하고자 한다. 분석대상문헌은 기존 연구에서 兒童教育이나 養育의 측면에서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된 문헌 중에서, 우선 文化內部的 觀點을 중시한다는 입장(金泳燦, 1982)에 기초하여 著者나 編者가 한국인인 문헌으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그 저술의 성격이 가정생활에 지침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子女教育에 대한 부모행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문헌으로 부터 父性과 母性에 관한 내용의 비중을 가늠하여, 內訓, 閩範選英, 增補山林經濟(家政篇), 士小節, 下學指南 등을 본 연구의 분석문헌으로 삼았다.

內訓은 成宗 6년에 昭惠王后 韓氏가 宮中 妃嬪을 비롯한 일반 부녀들을 위해 撰한 여성교훈서로서 오늘날까지 전해 오는 여성교훈서 중 가장 오랜 책이다. 閩範選英의 저자는 李衡祥으로 이 책 跋文에 의하면 肅宗 20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헌은 저자가 私家의 家訓用으로 저술한 것이므로 자신의 子婦와 자녀에게 훈계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閩房教訓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增補山林經濟는 柳重臨·朴世堂·徐有九가 英祖 42년에 洪萬選의 山林經濟를 增補한 것이다. 산림경제는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활과학지식을 수록한 것으로 생활지도서이자 과학서라고 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백과사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士小節은 英祖 때 실학자인 李德懋에 의해서 저술된 문헌으로, 士典·婦儀·童規의 3편으로 구

성되어 있다. 士典에서는 전통사회 남성들의 역할에 관한 지침적 내용을, 婦儀에서는 전통사회의 여성들의 역할에 관한 지침적 내용을, 그리고 童規에서는 아동의 교육과 습관형성에 관한 지침적 내용을 담고 있다. 下學指南은 安鼎福이 英祖 16년에 撰한 것으로, 선비가 일생동안 알아야 하고 실행해야 할 모든 분야에 대한 도리를 포괄적으로 집대성해 놓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행동에 관한 지침을 주로 담고 있는 편이나 장으로 중심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앞에 열거한 문헌들의 전체 내용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된 편이나 장을 추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추출된 장이나 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內訓의 母儀章, 閩範選英의 教子, 增補山林經濟家政篇의 訓子孫과 教女兒, 士小節의 士典篇(御下)·婦儀篇(教育)·童規篇, 下學指南의 正家에서 教養章 등이다. 그리고 분석대상 문헌에 관해 기존 학계에서 낸 번역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참조하여 原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동 연령경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規範書나 醫學書 등을 참조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우선 분석대상 篇(章)안에서, 孩·幼·小兒·兒·童 등, 아동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표현어가 서술되어 있는 사례들, 그리고 기존 연구(柳黠淑, 1989; 愼良宰, 1994a, 1994b)를 토대로 15·6세 이전이라고 연령이 명시된 사례를 추출하였다. 이들을 孩·幼·小兒 등으로 기술된 사례와 연령이 명시된 사례로 구분하였고, 연령이 명시된 사례는 다시 성별이 명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 보았다. ① 아동기 개념화: 여기서는 자녀훈육 상황에서의 아동관을 분석하였는데 훈육의 대상으로서의 아동 개념화, 훈육시기 설정에 대한 견해를 그 하위 내용으로 하였다.

② 연령별 행동기대: 자녀훈육상황에서 연령에 따라 아동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기대하는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③ 성별 행동기대: 자녀훈육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행동기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남아(男)·여아(女)·공통(共)의 범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 II. 本 論

### 1. 兒童期 概念化

아동기 범위는 15세 경까지로 볼 수 있는데<sup>1)</sup>, 훈육 대상이라는 입장에서 아동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관련자료를 정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④ 小兒兩手執物 猶恐不及 雖呵不從 當盡奪所執 啼哭欲死 勿與之可也(士小節 婦儀 敎育)
- ⑤ 飲食 常值之坐側 常食絮羹 卽叱止之曰 幼求稱欲 長當如何<sup>2)</sup>(內訓 母儀)
- ⑥ 小兒心氣未定(士小節 童規 敬長)
- ⑦ 人之幼也 知思未有所主(士小節 童規 事物)
- ⑧ 人之幼也 智愚有所主(下學指南 正家第五 敎養)

① 孩提時 見父祖規模不知合理與不合理 早晚存心記着 及長無不照樣行之(增補山林經濟 訓子孫)

② 自幼釋 便當有漸染之道(閩範選英 敎子)

④와 ⑤에서는 아동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견해를 짐작할 수 있다. ④에서는 어린 아이는 두 손에 물건을 잔뜩 거머쥐고도 오히려 부족해하며 아무리 못하게 해도 듣질 않는데, 이런 때에는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죽을 듯이 울어도 그것을 되돌려 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동의 정의적 특성으로서 무한정의 욕구 상태를 가정하고 있고, 이러한 욕구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은 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⑥에서는 어린 아이는 심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있어, 적절한 훈육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①에서 ③까지의 예로부터 아동의 지적 측면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다. ①에서는 어릴 때엔 아직 판별력이 없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②에서는 어렸을 때에 주장하는 바는 일면 지혜롭기도 하고, 일면 어리석기도 하다고 하였다. 그

1) 조선시대에 활용된 생활지침서를 중심으로 하여 아동기 범위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다.

- ①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論語 爲政)
- ② 人生十六歲以前 血氣俱盛如日方升如月方圓 惟陰長不足腸胃尙脆 理窄養之道不可不謹(東醫寶鑑 雜病篇 小兒)
- ③ 初一歲至十六歲曰幼 十七歲至三十二歲曰少 三十三歲至四十八歲曰壯 四十九歲至六十四歲曰老(東醫壽世保元 廣濟說)라 하여 15·16세가 경계가 되어 이후 시기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때까지를 아동기 범위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은 柳暉淑(1989)의 人間發達段階 분석이나,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에 관한 愼良宰(1994a; 1994b)의 兒童境界年齡 분석과 일치한다.

2) 士小節 婦儀 敎育에 ‘飲食 嘗置之坐側 常食絮羹 卽叱止之曰 幼求稱欲 長當如何’로 정자의 어머니에 대한 동일한 일화가 나타나 있다.

의미하는 바는 ㉑에서 좀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젓먹이 때에는 어른의 본보기를 보고도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 알지 못하나 조석으로 마음에 기억해 두었다가 성장한 뒤에 그대로 행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비추어 ㉒와 ㉓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㉔를 통해서 아동의 인지과정에 관한 견해를 알 수 있다. 즉 ‘早晚存心記着 及長無不照樣行之’를 보면, 아동의 인지체계는 외계로 부터의 경험들을 표상체로 저장하여 두었다가(早晚存心記着), 그것을 준거로 하여 행동하는(無不照樣行之)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sup>3)</sup>. 따라서 ㉕에서는 이러한 인식과정을 漸染之道라고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인생 초기는 정의적으로 무한정의 욕구 상태이면서 동시에 심기가 이렇다 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지적으로는 판단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지식형성을 위한 인지과정이 외계와의 경험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개념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시기를 학습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다<sup>4)</sup>.

훈육대상으로서의 아동에 대하여, 上述된 바와 같이, 인생 초기부터 학습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개념화되었다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훈육

의 효과적인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다음 자료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

㉑ 孺子蚤寢晏起 唯所欲 食無時(禮記 內則)

㉒ 孩提時 見父祖規模不知合理與不合理 早晚存心記着 及長無不照樣行之(增補山林經濟 家政篇 訓子孫)

㉓ 子能食食 教以右手 能言 男唯女俞 男鞮革女 槃絲(內訓 母儀)

㉔ 程子曰 古人生子能食能言而教之(下學指南 正家第五 教養)

㉕ 三歲至于十歲 受長者之擗 只三而已(士小節 童規 教習)

㉑는 孺子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며,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며, 먹는 것은 일정한 때없이 먹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㉒는 孩提時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본보기를 보고도 이치에 맞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㉓과 ㉔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다. ㉕는 이덕무가 3살에서 10에 이르기까지 어른으로 부터 매를 맞는 적이 3번 이라는 회고담이다. 이들로 부터 직접적인 훈육이 시작하는 때가 대략 3살 경 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인식론에 관한 견해는 大學의 '格物致知 致知在格物'에 근거한 것이다. 즉 성리학적 해석에 의하면 理가 物에 있고 知는 그 物에 있는 理를 窮究하는 것이며, 窮究方法은 物을 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能所를 엄격히 구분하고 理는 所知境에 있는 것, 知는 그를 能知者인 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이 理가 나의 밖에 있다는 泛理論의 物觀은 그렇기 때문에 앞서의 인용구를 하나하나의 物을 날마다 格해야 한다는 경험적 방법으로 보고 있다(金忠烈, 1988).

4) 분석문헌 중에서는 學記曰 禁於未發之爲豫(士小節 童規 事物)나 小學之法以豫爲先(下學指南 正家第五 教養)이라 하여 어려서의 예방을 중요시 하였고, 若爲之不豫及乎稍長 私意偏好生於內 衆口辨言鑠於外 欲其純完 不可得也(士小節 童規 事物)이라거나 若幼以不教至於既長 則習非放心教之甚難(增補山林經濟 訓子孫)이 라고 하여 어려서부터 가르쳐 예방하지 않으면 성장한 연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에서 그 결정적 시기에 관한 개념을 알 수 있다.

2. 兒童 年齡別·性別 期待

위해서 분석문헌을 분석하였다. 관련 자료를 年齡 順序와 性別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아동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기대를 알아보기

<표 1> 분석문헌에 나타난 연령별 행동기대

연령	분 석 내 용	행동기대(성별)
3	㉔ 子能食食 敎以右手(內訓 母儀) ㉕ 能言 男唯女俞 男鞞革 女鞞絲(內訓 母儀) ㉖ 纔數歲 行而或踏 家人走前扶抱 恐其驚啼 夫人未嘗不呵責曰 汝若安徐 寧至踣乎(內訓 母儀)	오른손사용(共) 웅대어·性差인식(共) 안徐(共)
6	㉗ 六年 敎之數與方名(內訓 母儀) ㉘ 女子六歲 始習女工之小者(內訓 母儀) ㉙ 主人孫兒年方六七 甚嬌愛 使兒戲辱蔭官 擬以犬牛 主人喜曰 小兒有氣 必興吾門 趙公正色曰 小兒心氣未定 雖撻而敎之 使敬長老 猶有不奉其敎 今乃敎之以侮辱 兒必認以爲老既可慢 則兄慢 父可慢 君上亦可慢 幾何不至於犯惡逆也(士小節 童規 敬長)	수·방위 학습(共) 여자의 일 학습(女) 어른 공경(共)
7	㉚ 七年 男女不同席 不共食(內訓 母儀) ㉛ 七歲 誦孝經論語(內訓 母儀)	성별 활동분리(共) 孝經·論語 읽기(女)
8	㉜ 八年 出入門戶 及卽席飲食 必後長者 始敎之讓(內訓 母儀) ㉝ 禮曰 男子八年 始敎之讓 此遜而不貪 謙而不吝 禮之善物也(士小節 童規 敎習)	辭讓(共) 辭讓·讓步·謙遜·不貪 不吝(男)
9	㉞ 九歲 講解論語孝經及女戒之類 略曉大意(內訓 母儀)	論語·孝經·女戒(女)
10	㉟ 十年 不出 姆敎婉婉聽從 執摩桌治絲繭 織紵組順 學女事以共衣服 觀於祭祀 納酒漿邊豆菹醢 禮相助奠 (內訓 母儀) ㊱ 女兒十歲之內 必令曉曉解諺字抄給三綱行實 使之知倫常之道 秋冬操緯車 春夏治桑蠶 使無一時之息 紬綿成疋 切勿費作家內衣服 一一藏置 則足爲嫁時之資用矣 女子十歲 處於閨內 不許出外又不許窺見外客 年至十四五以後 切禁與寶環玳珥之老婆 相親往來 非有父母兄弟之同坐 則勿論同宗異姓 不許 見從堂族屬 (增補山林經濟 敎女兒) ㊲ 禮云 男子十年出就外傅居宿於外 今比兒已十三四尚未出外可乎(下學指南 正家弟正 夫婦)	순한 태도로 가르침 따르기·삼과 모시다루기·실과 고치다루기·옷감짜기·의복짓기·제사일·閨門內 거처·외부인 相見금지(女) 위탁교육·바깥채 거처(男)

㉔, ㉕, ㉖에서는 3세경의 행동기대를 알 수 있다. ㉔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오른손으로 먹도록 하는 식사법을, ㉕에서는 말할 수 있게 되면 언어사용법과 성별차이 인식<sup>5)</sup>을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同一條目에 대하여 小學에서는 ‘子能言 稍有知 則教以恭敬尊長 有不識尊卑長幼者 則嚴詞禁之’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식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므로 이때부터 어른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술로부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3세 경의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동에게 어른의 恭敬이라는 행동기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㉖는 伊川先生의 어머니 侯夫人에 관한 기록인데, ‘數’가 대체로 두셋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아이가 두세살이 되었을 때의 일화라고 볼 수 있다. 아이가 걷다가 혹시 넘어지게 되면, 부인은 그때마다 “내가 만약 차분하게 걸었다면 어찌 넘어지겠느냐”고 오히려 꾸짖었다는 내용에서 아이가 2, 3세경의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행동거지의 차분함이 기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㉗, ㉘, ㉙에는 6세 경에 대한 행동기대가 나타나 있다. ㉗에 의하면 6세에는 數와 方位 학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사물에 대한 기본 개념 획득이 기대된 것으로 보여진다<sup>6)</sup>. ㉘에 의하면, 여아는 6세가 되면 여자의 일 중에서 사소한 것부터 익히기 시작할 것을 기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增補山林經濟 教女兒에 의하면 ‘婦功專心紡績潔齊酒食’이라 되어 있다. 즉 女工은 後述되는 ㉚과 ㉛의 행동들을 말한다 할 수 있는데, ㉘에 의한다면 이러한 일들의 소소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를 6세로 기대하고 있다. ㉙는 趙綱의 일화를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서 주인의 6, 7세 되는 손자의 모습을 보고 어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恭敬의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부터 6세 경의 아동에 대한 행동기대는 전반적으로 數와 方位 익히기, 어른에 대한 恭敬, 특히 女兒에게는 여자의 조그마한 일 익히기 등임을 알 수 있다.

㉚와 ㉛에는 7세에 대한 행동기대가 나타나 있다. ㉚에서 보면 7세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자

5) 小學에 따르면 ㉕과 동일 사항에 대한 集解로 ‘唯 應之速 兪 應之緩 男用皮 女用繪帛 皆有剛柔之義 男女異也’라고 되어 있다. 즉 남자는 공손하고 빠르게 대답하며, 여자는 부드럽고 나직하게 대답하며, 남자 띠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자의 띠는 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각각 강함과 부드러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남녀가 다르다는 내용이다. 이로부터 성별차이를 인식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이에 관한 내용에 관해 관련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時代 初學教材로 사용되었다(丁淳睦, 1985)는 啓蒙篇에는 ‘以東西南北 定天地之方 以青黃赤白黑 定物之色 以酸鹹辛甘苦 定物之味 以宮商角徵羽 定物之聲 以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百千萬億 總物之數’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방향, 색, 맛, 소리, 수 등 자연사물 제반에 대한 기본적 체계를 형성하였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五行의 體系를 바탕으로 지식울 조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風習이 상당부분 五行에 근거하여 시행된 사례를 볼 때, 주변의 日常世界를 구성하고 있음으로 해서 늘 활용되는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면에서, 이러한 개념의 학습은 매우 중요하였을뿐만 아니라 초기에 습득하기를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리에 앉지 않도록 하고,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㉑는 女兒에 관한 내용인데 7세에 효경과 논어를 외울 것을 기대하고 있다.

㉑과 ㉒에서는 8세에 대한 행동기대가 나타나 있다. ㉑에서 보면 8세에 문 밖을 드나들 때나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어른이 먼저 행한 후에 뒤쫓아 하도록 하는 讓을 기대함을 알 수 있으며, ㉒에서는 男兒가 8세가 되면 讓을, 즉 恭遜하면서도 탐내지 않고, 謙遜하면서도 인색하지 않는 예절을 지닐 것을 기대함을 알 수 있다. ㉑에서는 9세가 되면 論語와 孝經, 그리고 여자가 경계해야 할 여러 종류의 글을 해석하고 강론하여 간략하게나마 대략적인 뜻을 파악할 것을 기대함이 나타나 있다.

㉓, ㉔, ㉕에는 10세에 대한 행동기대가 나타나 있다. ㉓은 女兒에 해당하는 기대로서, 열 살이 되면 밖에 나가지 않게 하며, 女스승이 부드러운 말(婉)과 순한 용모(婉)를 듣고 따름을 가르치며, 삼과 모시를 잡고, 실과 고치를 다스리며, 비단을 짜고, 여자의 일을 배워서 의복을 만들고, 제사를 살피어 술과 국물과 대나무 제기와 김치와 육장을 준비하여 들고, 예를 갖추어 서로 도와 제물을 올리는 것을 배우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㉔도 역시 10세 전후의 女兒에 대한 행동기대가 나타나 있다. 10세 전에 규범서들을 통해서 배워 익혀 三綱五倫을 알게 하고, 베를 다루고 누에를 치고, 옷감을 짜고 의복을 만들어 장차의 혼수로 간직하도록 하게 하며, 10세가 되면 안에 거처하게 하여 외출을 금하고 외부인을 만

나는 것을 금하였으며, 14·15세 이후에는 그것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러한 내용들로부터 안과 밖의 분리된 생활공간에의 적응, 그리고 본격적인 성인 역할 학습과 수행을 10세 정도에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㉕에는 남아에 대한 행동기대가 나타나 있는데, 남자가 열살이 되면 밖으로 스승한테 나아가 글을 배워야 하고 外室에서 자야 하는 것이라는 내용에서 남아에게 있어서 생활공간을 바깥 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시기가 10세 경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된 여아의 경우를 함께 참조하여 본다면 10세가 기준이 되어 안과 밖의 구분이 生活에 확고히 되며, 이렇게 분리된 생활공간 안에서 남이는 성인 남자의 일을, 그리고 여이는 성인 여자의 일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고 연마할 것이 기대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의 자료의 三歲至于十歲 受長者之擧只三而已(士小節 童規 敎習)를 보면 10세가 언급되어 있고, ㉓과 ㉕를 보면 10세 부터는 남자의 경우에는 外傳(외부의 스승)에게, 여자는 姆(부도를 가르치는 부인)에게서 배운다는 것으로 볼 때, 교육이 부모의 직접적인 훈육으로부터 외부인으로의 위탁교육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10세가 그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중요한 경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세와 10세는 연령기대가 전환되는 의미있는 시점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sup>7)</sup> 또한 이상의 내용을 연령별, 성별로 종합해 보면, 남·여아 모두에게 지적 영역에서는 6세에 수와 방위 학습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관한 사회적 영역에서는 3세에 공손한 응대와 성차인식, 6세에 어

7) 그런데 士小節 婦儀의 敎育을 보면, ‘男子自初生至于七八歲 出入行步言笑起居衣服飲食節慎雍和培養德性 亦資母訓 然則爲母之職 不亦重且大乎’라 되어 있다. 즉 남자가 갓 날때부터 7-8세 될 때까지의 출입하고 행보하는 일이며, 언소하며, 기거하는 일이며, 의복과 음식에 관한 일이며, 그리고 조심하고 화목하는 일이며, 덕을 배양하는 일들도 역시 어머니의 훈계에 의지하게 되니, 어머니된 직책

른 공경, 7세에는 성별 활동분리, 8세에 사양과 겸손, 10세에 안과 밖으로 생활공간 분리와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 등의 행동이 기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3세에 오른손 사용과 안정된 걸음걸이가 기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남녀아 모두에게 3세 부터는 오른손 사용, 걸음걸이, 응대법 등 적절한 일상 행동거지 형성을 기대하였으며, 특히 3세에서 10세 까지에 가장 많이 기대되는 행동은 사회적 행동에 관한 것이며, 그 내용이 성전형화·공경·겸양 등 상호관계안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간 차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여아에게는 특히 6세부터 여자일 익히기가 시작되어 10세에는 구체적인 성인 여자일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논어, 효경, 여계서와 같은 규범서를 7세에 읽고 9세에 그 뜻을 터득하여 내면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고, 남아에 있어서는 8세에 양보, 겸손을 권장하는 등 욕심을 절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10세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것과 바깥채에 거처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 Ⅲ. 結 論

자녀훈육 상황에서 작용하는 兒童에 대한 父母의 信念은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는 文化構成的 觀點(cultural constrution model)과 아울러 文化가 歷史的 展開過程 안에서 維持, 變形된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韓國 傳統社會에서

의 兒童年齡期待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로서 朝鮮時代의 敎訓書를 分析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자녀훈육상황에서의 兒童期 概念化를 보면, 직접적인 훈육이 기대되는 연령은 3세 경으로서, 행동발달을 보자면 밥을 먹고, 말하기 시작할 때를 중요한 시점으로 본다. 이 연령시기를 자녀교육의 중요한 시점으로 보는 것은, 인생 초기는 무한정 욕구상태인 동시에 심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정의적 특성을 가지며, 지적으로는 판단력을 구비하지 못했으나 지식형성의 인식작용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아동개념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훈육상황에서의 年齡期待를 보면 우선, 3세와 10세가 각각 이전시기와 구별되는 경계를 이루는, 의미있는 시기로 나타났다. 즉 3세 경 부터는 전술된 바처럼 구체적인 훈육이 행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며, 10세는 이를 경계로 하여 이전에는 주로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정교육이 주가 되나, 이후에는 외부의 교사로 부터 교육을 받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 생활 경계도 안과 밖으로 실질적인 분할이 행해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기대의 내용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우선 3세 부터는 오른손 사용, 걸음걸이, 응대법 등 적절한 일상 행동거지 형성을 기대 했다는 점이 나타났다. 특히 3세에서 10세 까지에 가장 많이 기대되는 행동은 사회적 행동에 관한 것이며, 그 내용으로는 性典型化·恭敬·謙讓 등 상호관계안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은 중대 하다고 되어 있어, 7·8세까지는 모성이 더욱 강조되는 기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의 자료에서는 이와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규정을 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7·8세 경이 또다른 연령기대의 전환점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규명 작업이 추후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독립적 자아를 중요시 하는 서구문화와 달리 아시아 문화에서는 인간존재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간의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는 규범이 지배적인 경향이라는 점 (Shweder & Bourne, 1984)에 근거해 볼 때, 이러한 규범적 기대가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강조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맥락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은 아동 초기부터, 즉 3세부터 성전형화·공경·겸양과 같은 행동을 기대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행한 조사에 의하면, 3-6세 아동의 행동발달과 부모의 기대를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한 척도로 연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도보다 부모의 기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朴潤祥, 1981). 그런데 조사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세수, 머리빗기, 대소변 보러가기, 목욕, 독방에서 혼자 잠자기, 이불깔고 개기 등 자립행동에 관한 것으로서, 조사도구 자체에 독립된 자아 유지를 강조하는 서구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上述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조사내용 중에서 어른에게 인사하기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기대가 아동의 어린 나이부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부모의 기대에 공경과 같은 행동 특성을 중요시 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볼 때, 자녀에 대한 한국 부모의 知覺에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척도를 근거로 한, 현대 한국 부모들의 사회인지 조사가 필요하리라 본다. 끝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여아의 경우에는 論語, 孝經, 女戒書 등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과, 남아에 비해서 가내일에 관련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그런데 前 研究(愼良宰, 1994a; 1994b; 1994c)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敎訓書는 주로 規範的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해졌던 아동양육의 면모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敎訓書에 나타난 規範이 朝鮮時代 실제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졌는가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기타 사료적 가치를 지닌 朝鮮時代 문헌과의 대조를 통해서 연구결과가 다방면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兒童養育의 傳承的 過程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朝鮮 以前 時代에 관한 연구가 연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과제는 현대에 와서는 아동양육의 문화전승적 측면이 어떻게 유지·변형되어 부모들의 사회인지에 반영되어 나타나는가에 관한 연구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참 고 문 헌

- 啓蒙篇, 丁淳睦 編著(1982). 한국유학교육자료집 해(Ⅰ) 동몽교육편:서울:학문당.
- 閔範選英, 瓶窩全書 卷 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內訓, 韓國學文獻研究所, 서울:亞細亞文化社.
- 論語, 柳正基 監修(1991). 서울:명문당.
- 東醫寶鑑, 東醫寶鑑國譯委員會(1994). 서울:남산당.
- 東醫壽世保元. 洪淳用·李乙浩 共譯(1973). 서울:행림출판사.
- 士小節, 靑莊館全書 卷 27-31, 崔理煥 編著, 古活字本(民族文化推進會 譯, 국역 청장관전서 IV, 서울:민족문화추진회)
- 小學, 金星元 校閱(1978). 서울:명문당.

- 禮記, 李民樹 譯解(1993). 서울:혜원출판사.
- 增補山林經濟, 亞細亞文化社影印本.(이순형·조희금·고성혜·이은희 譯, 서울:정민사)
- 下學指南, 順庵全書 II, 驪江出版社刊行.(李采求 譯, 대전:신성문화사)
- 金泳燦(1982). 生活·文化·教育, 서울:교육과학사.
- 金玉姬(1985). 朝鮮朝社會의 女四書를 중심한 女性敎訓書의 內容分析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忠烈(1988). 中國哲學散稿, 서울:은누리.
- 朴渭祥(1981). 3-6세 兒童의 行動發達과 父母의 期待에 관한 研究, 아동학회지, 2, 17-30
- 孫直銖(1982). 朝鮮時代 女性敎育研究,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_\_\_\_\_ (1993). 士小節에 나타난 傳統 家庭敎育, 한국정신문화원 연구논총 93-18. 韓國人의 傳統家庭敎育思想, 47-130.
- 愼良宰(1994a), 高麗時代 兒童養育 研究 -高麗史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 149-162.
- \_\_\_\_\_ (1994b).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나타난 兒童期 考察, 대한가정학회지, 32, 125-134.
- \_\_\_\_\_ (1994c). 朝鮮時代 風俗志에 나타난 兒童養育 考察-東國歲時記·例陽歲時記·京都雜誌를 中心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219-228.
- 禹英姬(1989). 朝鮮時代 敎訓書를 통해 본 子女養育 -童蒙先習, 擊蒙要訣, 士小節, 順庵家訓을 中心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柳嘯沾(1991). 朝鮮後期 童蒙敎材의 內容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1989). 朝鮮時代의 人間發達段階 및 그 敎育內容, 아동학회지, 10, 1-18.
- \_\_\_\_\_ (1987). 士小節에 나타난 兒童敎育法 考察, 대한가정학회지, 25, 141-152.
- 李貞德·宋洵(1993). 小學에 나타난 童蒙期 禮節敎育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31, 157-168.
- 丁淳睦(1985). 朝鮮時代의 敎育名著巡禮. 서울:배영사.
- Bacon, M. K., & Ashmore, R. D. (1985). How mothers and fathers categorize descriptions of social behavior attributed to daughters and sons. *Social Cognition, 3*, 193-217.
- Bell, R. Q. (1979). Parent, child and reciprocal influences. *American Psychologist, 34*, 821-826.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D'Alessio, M. (1990). Social representation of childhood: An implicit theory development, In G. Duveen & B. Lloyd, (Eds.), *Social represent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x, T. H. & Grusec, J. E. (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ix, T. H., Ruble D. N. & Zambardo R. J. (1989).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 1373-1391.
- Fiske, S., & Taylor, S. E. (1984). *Social*

- cognition*. CA: Addison-Wesley Pub. Company.
- Goodnow, J. (1985). Change and variation in ideas about childhood and parenting.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 N. 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_\_\_\_\_(1988). Parent's ideas,actions and feelings: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retarsson, S. J., & Gelfand, D. M. (1988).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64-269.
-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s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19.
- Harkness, S., Super, C. M. & Keefer, C. H. (1992). Learning to be an american parent:How cultural models gain directive force. In R. D'Andrade and C. Strauss(Eds.),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 Combridge:Combridge University Press.
- Hoden, G. W., & Edward, L. A. (1989). Parental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Instrument, issue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uetin*, 106, 29-58.
- Holloway, S. D., & Hess, R. D. (1985). Mother's and teacher's attributions about children's mathematics performance.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 N. J.: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5.
- Maccoby, E. E. (1984).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55, 317-328.
- Ninio, A. (1979). The naive theory of infant and other maternal attitudes in two subgroups in Israel. *Child Development*, 50, 976-980.
- \_\_\_\_\_(1988). The effects of cultural background, sex, and parenthood on beliefs about the timetable of cognitive development in infancy. *Merrill-Palmer Quarterly*, 34, 369-388.
- Peterson, G. W., & Rollins, B. C. (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 Y.:Plenum press.
- Shweder, R. A., & Bourne, E. J. (1984). Does the conception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R. A. Shweder & R. A. LeVine(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on,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 of parenting,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sge and the family*, 55, 91-106.